

더 넓은 세상으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

김권수 기자 okb8888@khu.ac.kr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는 21일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선승관 및 각 단과대학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72회를 맞는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서울캠 2,266명, 국제캠 1,868명, 총 4,134명의 졸업자가 학사 학위를 받는다. 함께 진행되는 석·박사 학위수여식에서도 일반대학원 박사 191명, 석사 574명과 함께 특수대학원 박사 22명, 석사 914명이 학위를 받는다.

단과대학별로는 문과대학 169명, 법과대학 1명, 정경대학 446명, 경영대학 271명, 호텔관광대학 281명, 이과대학 223명, 생활과학대학 116명, 의과대학 110명, 한의과대학 111

명, 치과대학 74명, 약학대학 117명, 간호과학대학 138명, 음악대학 75명, 미술대학 52명, 무용학부 45명, 자율전공학부 37명, 공과대학 506명, 전자정보대학 167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89명, 응용과학대학 131명, 생명과학대학 148명, 국제대학 84명, 국제·경영대학 1명, 외국어대학 184명, 예술·디자인대학 337명, 체육대학 218명, 융합대학 3명이 학사모를 쓴다.

매년 우수한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총장상의 영광은 서울캠 15명, 국제캠 9명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서울캠 12명과 국제캠 9명이 학장상을 받고, 우등상은 서울캠 60명과 국제캠 44명이 받을 예정이다.

서울캠 총장상을 수상한 정은수(한국화 전공 2019) 씨는 “다양한 연령대와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대학 생활에서 맡은 바를 깨끗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목표였다”며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보단 차근차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지려 했다”는

2023학년도 전기 단과대학별 학위수여식 일정		
대학명	학위수여식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경영대학	2024.2.21(수) 14:00	오비스홀 111호
의과대학	2024.02.20(화) 11:00	크라운관
한의과대학	2024.02.21(수) 10:00	한의과대학관 263호
치과대학	2024.02.21(수) 09:00	치과병원 지하강당
약학대학	2024.02.21(수) 10:00	약학관 B301호

※ 위 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 학위수여식은 서울캠 평화의전당, 국제캠 선승관에서 진행.

수상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총장상 수상자 박보현(간호학 2020) 씨는 “대학 생활은 누군가의 감독도, 지지도 없지만 내면의 목소리를 믿고 여러 선택을 해야 하는 시작점이었다”며 “경희대는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동기가 됐고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희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색 없는 졸업가운, 언제까지 입어야 하나

임주양 기자 0816wndid@khu.ac.kr

특색을 담아내지 못하는 우리학교 졸업 가운 디자인을 향한 학생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학위수여식에 사용되는 졸업 가운 디자인은 지난 2010년도부터 사용되고 있다. 검은색 가운의 가슴 부분에는 우리학교 휘장이 있고 학사모는 육각 형태다. 학생들은 졸업 가운에 우리학교만의 특색이 없어 밋밋하다는 불만을 애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는 매년 ‘우리학교 졸업 가운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냐, ‘졸업 가운 디자인 좀 바뀌달라’는 등 부정적인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졸업생 최영진(문화관광산업학 2019) 씨는 “현재 졸업 가운은 학교 로고만 중앙에 배치되어 있을 뿐, 그 외 학교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며 “학교의 특징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하나(환경학및환경공학 2020) 씨는 “현재 졸업 가운이 학교의 이미지를 나타내지 못하는 디자인이라 몇 년 전부터 졸업가운 디자인 변경을 원하는데 여론 조사만 하고 바뀌는 게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총학생회(총학)는 매년 졸업 가운 위에 착용할 수 있는 스톨 대여 사업을 시간과 날짜 별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왼쪽부터 이화여대, 서강대, 연세대, 경희대의 학위복이다.

(일러스트=양여진)

“

현재 졸업 가운은 학교 로고만 중앙에 배치되어 있을 뿐, 학교를 상징하는 디자인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

서울캠퍼스(서울캠)에는 수량이 70개로 한정돼 있어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없고 국제캠퍼스(국제캠) 또한 한정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2학년도 서울캠 졸업준비위원회와 국제캠 총학은 학생 의견 취합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총학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한 총 2,678명의 학생 중 약 80%가 졸업 가운의 로고 위치, 상징 요소 부재, 단일 색상 등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이후 총학은 학교 측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예산 배정 및 디자인 선정과 같은 구체적인 변경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무산됐다. 제54대 서울캠 총학 김다은(무역학 2018) 부회장은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예산 문제로 변경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설문조사 이전부터 졸업 가운 디자인 논의를 해왔고 대학본부에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했지만 배정된 예산이 없어 한 번에 바꾸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

을 들었다”며 “예산 배정 요구를 후임 총졸업준비위원회에 인수인계했다”고 말했다. 현 서울캠 총학 서인하(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0) 부회장은 “졸업가운 디자인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학교 측과 소통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며 “학위 깃발을 비롯해 하나씩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 본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졸업 가운 디자인 문제가 우리학교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선 요구에 발맞춰 디자인을 변경한 곳도 존재했다. 연세대는 기존 졸업 가운이 학교 정신을 담지 못한다는 이유로 132년 만에 디자인을 변경했다. 이화여대 역시 134년 만에 학교의 상징색인 초록색을 포함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서강대는 졸업 가운 변경을 위해 ‘졸업 가운 개선 TFT(Task Force Team)’를 구성해 졸업준비위원회와 함께 졸업 가운을 변경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여 년간 유지해 왔던 검은 바탕 위 교표가 사용된 디자인에서 학교 상징색인 빨간색을 사용한 졸업 가운으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 중앙대, 동국대 등 많은 학교에서 특색을 담은 졸업 가운이 등장했다. 해당 학교 학생은 바뀐 졸업 가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